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의 사례 연구 -말하기 효능감의 변화와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김혜련 · 강소산*

(한신대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2.1. 상호문화능력과 상호문화접근법
 - 2.2. 한국어 교육에서 상호문화교육 연구
3. 연구 방법과 수업 설계
 - 3.1. 연구 대상
 - 3.2. 연구 도구
 - 3.3. 연구 절차와 분석 방법
 - 3.4. 수업 설계 및 수업 내용
4. 연구 결과
 - 4.1. 수업 전 후의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 분석 결과
 - 4.2.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5. 결론

* 주저자 : 김혜련, 교신저자 : 강소산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 1학기 국내의 H 대학에서 '한국어 말하기 기초'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말하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업 전 학습자의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은 평균 2.87점이었으나 수업 후에는 평균 3.46점으로 올라 학습자의 말하기 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를 통해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말하기 수업이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 수업이 학습자의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을 주었으며, 자발적으로 말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였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업 방안을 소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사례 연구, 상호문화접근법, 한국어 말하기 수업,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 학습자 만족도 조사

1. 서론

본 연구는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하여 말하기 수업을 진행한 후 이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학기의 시작과 끝에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을 측정하여 변화를 살펴보고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보려고 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의사소통에 있어 문화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화는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관, 행동 양식, 신념, 관습, 예절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외국어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영역 수업에 한국 문화 관련 내용을 자연스럽게 노출하여 학습자가 언어 학습과 목표 문화의 경험을 분리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도연, 2021:626). 본 연구에서는 언어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교육할 방법의 하나로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상호문화 접근법은 자신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목표 언어와 목표 문화를 인식하고 학습하는 외국인 교수 학습 방법을 말한다(조영미, 2018:231). Zatate(1986)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는 문화적 백지 상태가 아니라 자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목표 문화를 인식하므로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 모국의 문화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하였다. 홍용철(2014)에서도 목표 문화와의 접촉이 자신의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되면 목표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상호문화 접근법을 활용한 언어 수업은 자신의 문화를 바탕으로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게 된다. 이는 목표어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향상은 물론 언어 표현 능력과 언어 이해 능력의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이은진, 권연진, 2018:198).

한편 한국어 학습자 대상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 고찰 연구를 한 문희진, 김영순(2023)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읽기, 쓰기 영역이 주로 다루어져 다양한 언어 기술과 실제적인 의사소통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서 아직 활발히 연구되지 않은 말하기 교육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수업 효과 검증의 방법으로 학습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수업 전과 후에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을 측정하여 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겠다.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은 “한국어 말하기 능력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신념”을

말한다(강소산, 2017:1). 외국어 학습에서 효능감은 학습의 성취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Chen, 2007; Shang, 2011 등)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 측정은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적절한 도구로 볼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 생활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어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상호 비교하여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말하기 과제 수행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상호문화능력과 상호문화접근법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독일어 교육과 프랑스어 교육에서 상호문화 개념과 교육 내용을 번역하며 소개되었는데 외국어 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연구가 증가했다.

강승혜 외(2010)는 언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화는 의사소통 능력 숙달을 위한 문화만이 아니라 상호문화 이해 및 소통을 위한 문화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한국어 교육에서 '상호문화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상호문화능력은 학습자가 자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배우고 존중하며 자신의 문화를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호문화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모국 문화, 다른 학습자의 문화 등을 비교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화의 특이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언어 문화적 환경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은주, 2008:650).

상호문화접근법은 학습자의 상호문화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적 방법을 의미하는데 목표 언어 문화를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의 문화와 비교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¹⁾을 지향한다. 상호문화접근법으로 외국어 수업에서 외국 문화를 배울 때는 목표어 공동체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학습자 자신의 문화와의 비교 성찰을 통해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정우향, 2020:24).

한국어 교육에서 상호문화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은 한국 문화 수업 시간에도 이루어져야겠지만 언어 교육 현장에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해 말하기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2.2. 한국어 교육에서 상호문화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에서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는 상호문화교육의 개념과 이론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상호문화교육의 개념과 이론에 대한 연구로는 김옥선(2007), 최정순(2013) 등이 있다. 김옥선(2007)에서는 상호문화학습의 목표와 개념을 소개하며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최정순(2013)에서는 한국어교육과 한국어 문화교육의 발전 현황에 대해 살피고 향후의 교육이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과 이론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혜민(2015), 배재원, 이승연(2016), 이경외(2022) 등이 있다. 김혜민(2015)는 상호문화교육을 바탕으로 교수 전략을 고안하여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교수가 체계적으로 기능하도록 교수 전략을 고안하였다. 배재원, 이승연(2016)은 한국어 교사의 한국 문화 교육 능력의 신장을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여 교사

1) 장한업(2014:150-156)은 상호문화교육에 관한 학자들의 교육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Partoune(2000), Clément(2001), Maga(2006)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학습자들이 먼저 자문화 인식하고 타문화 발견하며 양 문화 비교한 후 타문화 관용과 같은 절차들을 거치면서 교실 내 수업 활동들이 전개된다고 한다.

교육과정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경 외(2022)은 해외 한국어 교사의 상호문화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한국어 교사의 역량이 상호문화 교수에 중요함을 말하며 교사가 지녀야 할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호문화교육의 교육 방안을 고안하거나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한 연구로는 이은진, 권연진(2018), 조영미(2018), 고경민(2019), 김도연(2021), 정화영(2021), 조연하(2022) 등이 있다. 이은진, 권연진(2018)은 한국어 신체어 관용 표현의 교육 방안을 상호문화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조영미(2018)는 대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상호문화적 수업에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사례를 제시하고 학습자의 상호문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의 역량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고경민(2019)는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학부 학습자들의 문화교육을 살펴보고 ‘문화이력서’를 작성하여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조연하, 박덕유(2020)은 전래동화를 활용하여 한국인 및 타 문화권 학습자의 결혼관, 직업관, 국가관을 선정하여 수업 모형 절차에 따라 교수·학습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김도연(2021)은 상호문화 의사소통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 고찰하고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문화 영역의 내용 범주와 활동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정화영(2021)은 대학의 교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문화 수업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 교육에서 상호문화교육 관련 교육 방안 연구 중 말하기 영역과 관계된 연구는 고경민(2019) 정도로 말하기 수업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과 수업 설계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3년 1학기 국내 H 대학에서 교양으로 '한국어 말하기 기초' 수업을 듣는 학습자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표 1>은 본 연구의 대상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연구 대상

		수	퍼센트
성별	남	10	55.6
	여	8	44.4
나이	20대	17	94.4
	30대	1	5.6
국적	베트남	14	77.8
	우즈베키스탄	4	22.2
한국 체류 기간	6개월 이하	8	44.4
	6개월 이상 1년 미만	3	16.7
	1년 이상 2년 미만	3	16.7
	2년 이상 3년 미만	2	11.1
	3년 이상	2	11.1
TOPIK 급수	2급	2	11.1
	3급	2	11.1
	없음	14	77.8

본 연구의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10명, 여자 8명으로 성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나이는 20대가 17명, 30대가 1명으로 대부분이 20대였다. 국적은 베트남 14명, 우즈베키스탄 4명이었다. 한국 체류 기간은 6개월 이하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 3명, 1년 이상 2년 미만 3명, 2년 이상 3년 미만 2명, 3년 이상 2명으로 나타나 한국에 총 1년 미만으로 체류한 학습자의 비율이 50%가 넘었다.

TOPIK 급수는 없는 학생이 14명이었고, 2급이 2명, 3급이 2명이었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수업 전과 후에 학습자의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강소산(2017)의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 문항을 사용하였다.²⁾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의 측정 도구로 사용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³⁾

〈표 2〉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 측정 문항(강소산, 2017:85)

말하기 수행 효능감	나는 한국어로 대화를 잘 할 수 있다.
	나는 한국어로 발표를 잘 할 수 있다.
	나는 한국어로 토론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한국어로 토의를 잘 할 수 있다.
	나는 한국어로 인터뷰를 잘 할 수 있다.
	나는 한국어로 직장 생활에 필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일 관련 대화, 회의에서 대화, 업무 보고 등).
	나는 한국어로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전공, 직업 등 전문 분야에 대해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한국어 속담, 관용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
어휘 문법 담화 효능감	나는 상황에 맞는 한국어 어휘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다.
	나는 다양한 한국어 어휘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다.
	나는 한국어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말할 수 있다.
	나는 다양한 한국어 문법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다.
	나는 한국어로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적절한 한국어 접속사(conjunction)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다.	

2) 이는 강소산(2017)의 측정 문항이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에서 말하기 효능감 측정을 위해 개발되어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 측정도구는 강소산(2019), 김지현, 성인경(2021), 주월량(2022), 이경훈(2022), 왕욱요(2024) 등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어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은 바 있다.

3)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은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을 받았다. 이는 강소산(2017), 강소산(2019) 등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 관련 연구에서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따랐다.

기본적 말하기 효능감	나는 한국어로 나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다.
	나는 한국어로 큰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다.
	나는 상황에 맞게 한국어로 적절하게 말할 수 있다.
인정 효능감	나는 한국어로 말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더 쉬운 말로 설명하기, 도움 요청하기 등)
	나는 지금까지 한국어 말하기를 잘해 왔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한국어 말하기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공손법 효능감	친구들은 내가 한국어 말하기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내가 한국어 말하기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대화 상대에 따라 적절한 한국어 높임말을 사용할 수 있다.
발음 효능감	대화 상대에 따라 적절한 호칭어와 지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인 상황과 비공식적인 상황을 구분하여 적절한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나는 한국어로 말할 때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다.
	나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억양으로 말할 수 있다.
	나는 한국어를 말할 때 적절한 속도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한 학기의 수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자 만족도 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다.⁴⁾

〈표 3〉 학습자 만족도 조사 문항

객관식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 만족했습니까?
	한국어 말하기 수업이 한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수업 시간에 사용된 한국 문화에 대한 동영상에 한국어 말하기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수업을 들은 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한국어 말하기 수업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까?
	다음 학기에도 한국어 말하기 수업을 계속 들을 의향이 있습니까?
주관식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서 좋았던 점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4) 학습자 만족도 조사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받았다.

3.3. 연구 절차와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23년 1학기 H대학에서 ‘한국어 말하기 기초’수업을 듣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수업 전 학습자의 말하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수강정정이 끝난 후 첫 번째 시간인 2023년 3월 13일에 학습자의 말하기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수업 후의 학습자 말하기 효능감과 학습자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마지막 수업날인 2023년 6월 12일에 학습자의 말하기 효능감을 측정하고,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7.0을 이용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을 통해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기술통계 분석을 이용해 문항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수업 전과 후의 말하기 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유의 수준은 $p < 0.05$ 로 판단하였다.

3.4. 수업 설계 및 수업 내용

3.4.1. 수업 설계와 수업 절차

본 연구는 국내의 H대학에서 2023년 1학기에 외국인 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한국어 말하기 기초’ 수업에서 15주 동안 진행되었다. 오리엔테이션, 중간고사, 기말고사 3주를 제외하고 총 12주 동안 상호 문화접근법을 활용한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음 <표 4>는 주차별 수업 내용이다.

<표 4> 주차별 수업 내용

주차	학습 내용 및 목표	상호 문화 비교 말하기 활동
1	자기 소개	한국과 자국의 인사 방법 비교
2	여가 활동	한국과 자국의 여가 활동 비교
3	교통 수단	한국과 자국의 교통 수단 비교
4	옷차림	한국과 자국의 상황별 옷차림 비교

주차	학습 내용 및 목표	상호 문화 비교 말하기 활동
5	주거 시설	한국과 자국의 선호하는 주거 시설 비교
6	장래 희망	한국과 자국의 선호하는 직업 비교
7	소식	한국과 자국의 SNS 비교
8	건강	한국과 자국의 건강식품 비교
9	음식	한국과 자국의 음식 비교
10	기호	한국과 자국의 선호하는 숫자, 색 비교
11	여행	한국과 자국의 여행지 비교
12	명절	한국과 자국의 명절 비교

한 주에 75분씩 2차시의 수업을 실시하였고, 수업은 도입, 전개, 활용, 마무리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다음 <표 5>와 <표 6>은 한 주 동안 실시되는 차시별 수업 단계와 교수 학습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1차시 교수 학습 내용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시간	학습자료
도입	· 인사 · 발표 주제 소개	5분	
전개	· 발표 주제와 관련된 영상 시청 또는 그림 제시 · 어휘, 표현 설명 · 영상 또는 그림 다시 보기 · 영상 또는 그림을 본 후 한국 문화 인식에 대해 말하기	30분	PPT
활용	· 주제에 대한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를 비교하여 말하기	20분	
마무리	·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기 · 다음 차시 예고	20분	

〈표 6〉 2차시 교수 학습 활동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학습자료
도입	· 인사 · 전시 학습 복습	10분	
전개	· 지난 시간 말하기 내용 정리하여 발표문 쓰기 · 교사 피드백	30분	PPT
활용	· 주제에 대해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를 비교하여 발표하기	30분	
마무리	· 발표에 대한 피드백과 마무리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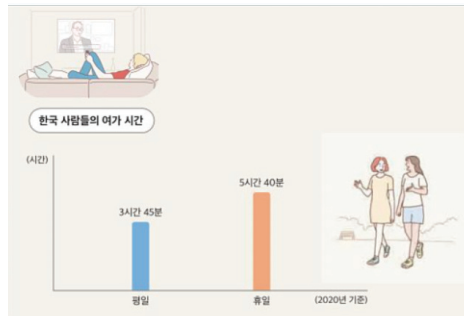
1차시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주제에 맞는 배경 지식 이해를 위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전개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영상이나 그림을 제시하였다. 영상은 3분 이하로 주제와 관련된 짧은 영상을 편집하여 제시하였다. 영상의 내용은 말하기 주제가 확실하게 보이도록 영상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문법은 초급 말하기 수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관련 영상 선정과 준비가 어려울 시에는 주제와 관련된 단순한 그림을 보여 주었다. 제시하는 자료의 어휘나 표현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용 단계에서는 그룹 활동으로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비교해서 말하게 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에 대해 알게 된 점을 함께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2차시 수업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수업 시간에 그룹 활동으로 함께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리고 1차시에 학생들이 말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문 형식에 맞추어서 발표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학습자들이 한국어 말하기 기초 수업의 수강자들인 점을 고려하여 발표문 형식은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쓴 발표문에 대해 교사가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발표할 때는 발표 내용을 보고 읽지 않도록 최대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간에 발표문을 보는 경우와 발표 시작할 때와 발표를 마칠 때에 적절한 비언어적인 제스처도 함께 교육하여 자연스럽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표 후

에는 교사와 동료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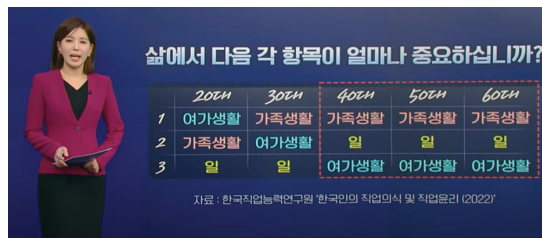
3.4.2. 실제 수업 사례

2주차의 주제는 ‘여가 활동’이었다. 1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할 때는 도입 그림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주제에 대한 흥미 및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였다. 다음 <그림 1>은 수업 시간에 사용한 도입 그림이다.



<그림 1> 여가 시간 활동 도입 그림(출처: 세종한국어 2A 2과)

그리고 여가 시간 활동과 관련된 어휘를 정리한 후 짧게 편집된 뉴스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뉴스에서 어려운 어휘나 문법이 사용되는 전체적인 장면보다 수업 주제와 관련된 도표를 해석하는 부분만 보여주었는데 세대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을 함께 보았다. 다음 <그림 2>는 수업 시간에 사용한 뉴스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ytn 뉴스 2022. 11. 29. ‘일과 가족관계 그리고 여가생활 뉴스’

그 후 세대별 한국과 자국의 여가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소그룹으로 말하기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자국의 여가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한 후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2차시 수업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소그룹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리고 학생들이 말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문 형식에 맞추어서 발표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발표문은 학습자들이 한국어 말하기 기초 수업의 수강자들인 점을 고려하여 발표 형식을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다음 <그림 3>은 발표문 말하기 형식 PPT를 나타낸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_(전공)_학과 _(이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가생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
.
.
이것으로 /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 3> 발표문 말하기 형식 PPT

1차시에서는 주제에 따라 한국과 자국 문화의 차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록 했지만 2차시에서는 발표문 형식에 맞게 정리한 내용을 학습자 모두가 발표하도록 하였고, 최대한 암기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표 후에는 교사와 동료 학습자가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기 초와 학기 말에 말하기 효능감을 측정하여 변화를 살펴보고,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4.1. 수업 전 후의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말하기 효능감 측정에 사용한 29개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 측정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항목 수
.986	29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의 Cronbach's alpha 값은 0.986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0.7 이상일 때 측정 문항의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함을 감안하면 본 측정 문항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표 8>은 수업 전과 수업 후의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8> 수업 전과 수업 후의 말하기 효능감의 변화

	평균	표준편차	t	p
수업 전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	2.87	0.97	-3.439	.001**
수업 후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	3.46	0.96		

수업 전에 측정한 학습자의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은 2.87점이었으나 수업 후에는 3.46점으로 학습자들의 말하기 효능감은 높아졌다.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이 말하기 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의 말하기 활동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보인다.

다음 <표 9>는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의 요인별로 말하기 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표 9〉 수업 전과 수업 후의 요인별 말하기 효능감의 변화

		평균	표준편차	t	p
대응1	수업 전 말하기수행효능감	2.83	1.02	-1.978	.064
	수업 후 말하기수행효능감	3.22	1.00		
대응2	수업 전 어휘문법담화효능감	2.87	1.06	-3.647	.002**
	수업 후 어휘문법담화효능감	3.60	0.96		
대응3	수업 전 기본적말하기효능감	2.79	0.97	-3.942	.001**
	수업 후 기본적말하기효능감	3.45	1.03		
대응4	수업 전 인정효능감	2.68	1.14	-3.791	.001**
	수업 후 인정효능감	3.48	1.25		
대응5	수업 전 공손법효능감	3.29	0.95	-2.190	.043*
	수업 후 공손법효능감	3.84	1.04		
대응6	수업 전 발음효능감	2.96	1.04	-2.402	.028*
	수업 후 발음효능감	3.42	0.94		

말하기 효능감의 6개 세부 요인 중 5개 세부 요인인 어휘문법담화효능감, 기본적말하기효능감, 인정효능감, 공손법효능감, 발음효능감에서 수업 전에 비해 수업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어휘문법담화효능감은 수업 전에는 평균 2.87이었으나 수업 후에는 평균 3.60으로 높아졌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였다. 기본적말하기효능감은 수업 전에는 평균 2.79였지만 수업 후에는 평균 3.45로 높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였다. 인정효능감은 수업 전에는 평균 2.68이었으나 수업 후에는 평균 3.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공손법효능감은 수업 전에는 평균 3.29였으나 수업 후에는 평균 3.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발음효능감은 수업 전에는 평균 2.96이었으나 수업 후에는 평균 3.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를 통해 본 수업이 한국어 어휘, 문법과 담화의 사용, 공손법 사용, 한국어 발음과 관련된 말하기 효능감, 자신의 전반적인 말하기 실력과 이에 대한 타인의 인정에 관련된 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말하기수행효능감은 수업 전에는 평균 2.83이었으나 수업 후에는 평

균 3.22로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다. 말하기수행효능감은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담화 유형에서의 말하기와 관련된 효능감인데 한 학기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와 담화 유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효능감 요인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2.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업 만족도 조사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alpha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수업 만족도 조사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항목 수
.933	6

수업 만족도 조사 문항의 Cronbach's alpha는 .933으로 나와서 본 조사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11〉은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이다.

〈표 11〉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문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수업 만족도	2	5	4.06	.873
수업이 한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 정도	2	5	4.06	.873
수업에서 사용한 동영상에 한국어 말하기 학습에 도움이 된 정도	3	5	4.28	.826
수업이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이 된 정도	3	5	4.22	.808
수업 추천 의향	3	5	3.83	.786
다음 학기 수강 의향	2	5	4.22	1.003
전체	2	5	4.11	.8615

수업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4.11점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수업 만족도 문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수업에 사용된 동영상에 말하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평균 4.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수업을 들은 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응답이 평균 4.22점, 다음 학기 수강 의향에 대한 응답은 평균 4.2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수업에서 좋았던 점에 대한 학습자 응답 중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6)

- 한국말은 좋아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어요 -S1
- 말하기 연습이 많습니다.-S2
- 말하기를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S3
- 말하기 많이 해서 좋아요 -S4
- 재미있는 주제와 도움이 되는 단어를 많이 공부했다 -S5
- 아주 재미있었습니다.-S6
- 교수님 진짜 재밌어요.-S7
- 재밌어요.-S8
- 한국 생활을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S8
- 발음을 잘 할 수 있어요 -S9
- 천천히 가르쳐 주셔서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S10
- 교수님이 센스 있어요.-S11

수업에서 좋았던 점에 대해 수업 시간에 말하기를 많이 한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는 말하기를 통해 자발적으로 말할 기회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업의 재미에 대한 응답도 많았는데, 학습자들이 상호문화를 비교하는 수업 방식에 대해 흥미를 느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

5) 수업 만족도 조사는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응답을 받았다. 평균이 4점이 넘는다는 것은 모든 문항에 대해 평균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학습자 응답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

국 생활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응답도 있어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수업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는 발음 연습, 이해 가능한 강의 방식, 교수 특성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다음은 수업에서 개선할 점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18명 중 15명의 학생이 수업에 만족하여 개선할 점이 없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의 다수가 수업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수업 개선점에 대한 학습자 응답이다.

교수님은 사람들이 한국어로 더 많이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S1

단어가 더 많이 알려주세요. -S2

한국능력시험에도 공부하면 좋아합니다-S3

수업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은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고 싶은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는 단어와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응답이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23년 1학기 국내 H대학에서 학부 교양 말하기 수업인 ‘한국어 말하기 기초’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말하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말하기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기 시작과 학기 끝에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을 측정하였고, 학기 끝에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7.0으로 하였으며 기술통계 분석과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수업 전과 후의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은 수업 전에는 2.87점이었으나 수업 후에는 3.46점으로

올랐고, 대응표본 T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이 말하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비교하는 말하기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학습자들의 흥미가 유발되어 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수업에 사용된 동영상에 말하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과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응답과 다음 학기에 다시 수강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제에 맞는 편집된 동영상을 사용하여 유의미한 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 유발 및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말하기 수업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수업 만족도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 말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말하기 과제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을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업에 대한 재미와 관련된 응답도 많아서 본 수업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업 방안을 소개하고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은 말하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 대상의 학습자가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학습자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의 한계가 있다.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말하기 수업의 다양한 사례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소산(2017).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효능감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소산(2019).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 연구, <새국어교육> 119, 345-373쪽.
- 강승혜 · 김성희 · 박성태 · 임형재 · 최주열(2010). 한국문화교육론, 형설출판사.
- 고경민(2019). 상호문화교육과 스토리텔링, <스토리&이미지텔링> 17, 15-34쪽.
- 김도연(2021).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129, 599-633쪽.
- 김옥선(2007). 한국어 교육에서의 상호문화 학습의 실천, <다문화사회와교육> 3, 16-32쪽.
- 김혜민(2015).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희진 · 김영순(2023). 한국어 학습자 상호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언어와 문화> 19(3), 101-133쪽.
- 배재원 · 이승연(2016). 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사 교육 방향 연구 - 한국어 교사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1, 223-258쪽.
- 김지현 · 성인경(2021). 모바일을 활용한 말하기 과제가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화법연구> 51, 1-22쪽.
- 왕욱요(2024).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 학문 목적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6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95-128쪽.
- 이경 · 강현주 · 김수은(2022). 한국어 교원의 상호문화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연구 - 미주 지역 K-12 및 세종학당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9(1), 87-124쪽.
- 이경훈(2022). 초분절음운(억양) 시각화 훈련이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 베트남어권 중급 단계 학습자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87, 263-285쪽.
- 이은진 · 권연진(2018).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신체어 관용 표현의 상호문화적 교육 방안 연구, <언어과학> 25(1), 193-216쪽.
- 장한업(2014). 이제는 상호문화 교육이다, 교육과학사.
- 전은주(2008). 다문화 사회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목표 설정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3, 629-656쪽.
- 정우향(2020). 유럽의 상호문화접근법과 한국문화 교육.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8-29쪽.
- 정화영(2021). 상호문화접근법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한민족어문학> 94,

- 179-206쪽.
- 조연하 · 박덕유(2020). 상호문화교육에 기반한 춘향전 교수·학습 방안 연구 -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1259-1279쪽.
- 조영미(2018). 상호문화 접근법을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육 사례 연구 - 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9, 225-247쪽.
- 주월량(2022). 말하기 전 쓰기 활동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말하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반교어문연구> 61, 233-254쪽.
- 최정순(2013).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까지 문화간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제안하며, <한국고전연구> 27, 5-28쪽.
- 홍용철(2014).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에서의 한국 문화 도입의 필요성,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1(3), 293-311쪽.
- Chen, H. Y.(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EFL learners' self-efficacy beliefs and English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 Shang, H. F.(2011).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FL proficiency level and reading strategy us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 18-27.
- Zarate, G.(1986). *Enseigner Une Culture Etrangere*, Hachette.

필자 소개

성 명 김혜련
소 속 한신대학교
주 소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3408호 [우편번호]18101
전자우편 fusl99@hs.ac.kr

성 명 강소산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D동 D69K호
강소산 교수 연구실 [우편번호]46234
전자우편 sosan@bufs.ac.kr

Abstract

A Case Study of Korean Speaking Classes Using Intercultural Approach - Focusing on Changes in Korean Language Speaking Efficacy and Learner Satisfaction Survey -

Kim, hye-ryeon · Kang, so-san

(Hanshin University,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cases of Korean speaking classes using the intercultural approach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of classes. Korean speaking classes using the intercultural approach were conducted for learners taking a “Basic Korean Speaking” course at H university in South Korea during the spring semester of 2023.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earners’ Korean speaking efficacy increased from 2.87 points before to 3.46 points after the course, indicat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Through satisfaction survey, it was evident that this class enhanced learners’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provided ample opportunities to voluntarily speak about Korean and their own culture, and stimulated learners’ interest.

[Key words] case study, intercultural approach, Korean speaking classes, Korean language speaking efficacy, learner satisfaction survey

투고일 2024. 02. 28 / 심사일 2024. 03. 17 / 게재확정일 2024. 03. 21